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0/14℃ 목포 1/2℃ 여수 4/13℃

단기 4343년 (음력 12월 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78호 1판 2010년 1월 19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공무원 벌써부터 지방선거 줄서기

지연·학연따라 유력후보와 정보 주고받고 편가르기도

단체장 중도사퇴 지역 극심…정부 감찰반 투입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 사회 유력인사들의 6·2 지방선거 출마선언이 잇따르는 등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공직사회 내 '눈치 보기'와 '줄서기'가 극심해 지역 현안 차질은 물론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폐해는 특히 단체장이 중도 사퇴한 지역이나,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자치단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립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시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박람회 개최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국회의원의 편을 들고 나선 반면, 시청 공무원 노조 등은 시장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하기 힘든 분위기라는 얘기다.

광양시도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와 줄서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 단체장과 유력 후보 중 누구를 택할지 저울질하는데 온 신경이 쏠려 있다는 것이다.

남보다 먼저 '충성'을 해야 선거 이후 논공 행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여론조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가 하면 지연·학연을 내세우며 수시로 선거 관련 정보를 묻거나 전해주는 자발적 정치행위가 더해지면서 공직사회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정섭 전 담양군수, 박연수 전 진도군수 등 기존 단체장들의 낙마로 '무주공산'이거나 선거법으로 조사를 받는 유력 후보에 대한 줄서기 움직임이 있어 선관위가 주목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이가 껄끄러운 시·군·구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모 교육감 후보의 경우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다 해당 교육청의 반발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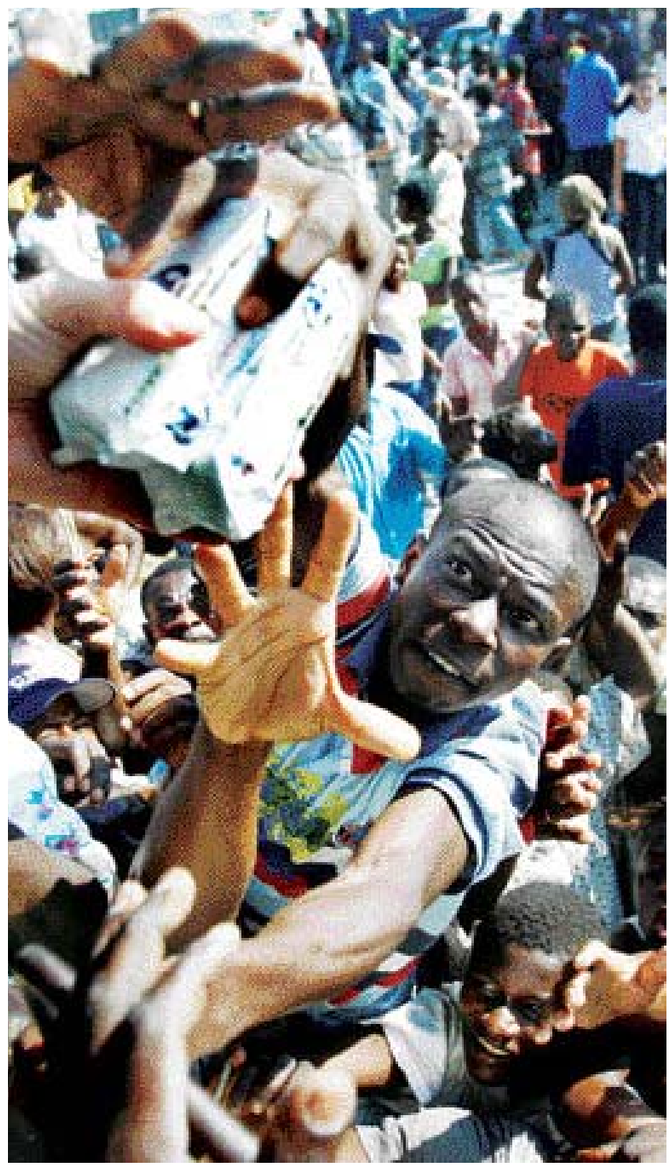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인사도 공직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안군 공무원노조가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정한 인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가 하면 무안군 공무원노조는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전남도도 조만간 예정된 인사를 앞두고 시·군 단체장의 비협조로 부군수 등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군수가 바뀔 경우 행정 조직이 흐트러져 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에따라 다음달부터 지방선거 줄서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전남 등 전국의 지자체에 특별감찰반을 투입한다. 줄서기, 편가르기, 선심성 예산, 공무원 노조 선거개입 등이 감시 대상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공직사회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필사적인 식량 쟁탈전 아이티 주민들이 17일 구호 트럭에서 분배되는 식량을 서로 먼저 잡으려고 달려들어 팔을 뻗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자체 아이티 돕기 나서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강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 돕기에 나섰다. 정부도 민관합동으로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는 18일 박광태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아이티공화국에 현금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기탁했다.

시는 앞으로 민간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시민모금 운동 전개와 의료인력 파견, 의약품 전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 등 직원 900명도 630만원의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날 박준영 도지사 명의로 '아이티 지진 피해 이주민 돕기 범도민 모금운동 취지문'을 발표하고 19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 도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NCC·광주YMCA·광주YWCA 등은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백제실에서 아이티 국민을 위한 기독단체 공동 기도회를 갖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아이티 강진사태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지원은 규모 면에서 이날 현재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에 이어 세계 6~7위 수준이다.

/윤현석·김지을·이종행기자 chadol@

광주시 "이제는 OLED다"

21세기 조명 산업화 나서…금호전기 하반기 양산라인 구축

광주시가 올해부터 21세기 조명으로 각광 받고 있는 LED보다 다양한 조명기구 개발이 가능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조명의 산업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18일 "LED산업과 함께 OLED 사업이 향후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올해 23억원 등 오는 2014년까지 모두 국비 200억원 등 2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LED 조명 개발은 지난 2006년 국가지원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가 OLED조명 개발센터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는 등 산업화에 대비해왔다.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는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OLED 조명 산업화 지원을 위한 핵심장비 구축, 성능인증 및 표준화 사업, 사용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게된다. 목표는 3㎝×12㎝, 15㎝×15㎝ 크기의 면광원을 2~3년 내에 상품화 한다는 것이다.

금호전기는 이와 관련 올 하반기 신규투자를 통해 하남산업단지 내에 OLED 양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OLED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참여도 잇따를 전망이다.

시는 OLED의 세계시장이 오는 2015년 154억 달러, 2020년에는 25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OLED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화를 통해 기술력 높은 지역기업을 조속히 육성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OLED 조명은 기존 반도체 광원에서 진보된 투명, 유연, 대면적의 혁신적인 특징이 결합돼 있다"며 "따라서 미래지향적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LED산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OLED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종호(47) 수석연구원은 "현재 OLED 기술은 선진국 선도기업에 비해 80% 수준이지만,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유연한 형태의 다양한 조명기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반도체 조명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즉 유기발광다이오드의 줄임말.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발광현상을 이용,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을 말한다. LED는 재료가 무기물인데 반해 OLED는 유기물이며, LED는 점에서 빛을 발산하지만, OLED는 면에서 빛을 발산한다.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21일 첫 전국 검사회의 檢-法 갈등 새 변수로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대검찰청과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1천700여명이 전원 참가하는 회상회의가 열린다. 〈관련 기사 4면〉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준규 검찰총장과 각급 검사장들은 오는 21일 전국의 일선 검사들이 참여하는 첫 화상회의를 연다.

당초 이번 회의는 올해 검찰 수사에 대한 전략과 조직운영 방안 등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일선 검사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마련됐지만, 최근 사법부와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인 만큼 이 문제가 정식 안건보다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범죄사건 수사가 주요 안건으로 잡혔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경우 자연스런 의견 표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이나 처분에 대한 성토가 이뤄지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하나로 수렴될 경우 법원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6·2 지방선거 뛴다-광주 동구 ▶5면